

한류 콘텐츠 불법 복제 '꼼짝마'

문체부, 인터폴과 공조키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약체' 열고 콘텐츠 침해 보호 방안 등 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부터 해외를 거점으로 한 한류 콘텐츠 불법복제물 유통범죄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터폴과 공조한다.

문체부는 17일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현황과 대응방안, 합법 이용을 위한 유통문화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약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현장 참석을 제한하고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올 해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문화,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며, 게임·웹툰 등 비대면 수혜 분야의 성장과 더불어 온라인 유료 콘서트, 온라인 유료 뮤지컬 등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영상, 음악 등 콘텐츠는 세계적 플랫폼 발달로 접근성이 높아져 전 세계적인 수요가 확대되며 다양한 지역에서 한류 팬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한류 인기에 힘입어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의 활용 분야가 영상, 게임, 상품, 화장품, 의류 등으로 확대되면서 더욱 큰 부가가치 창출과 동시에 저작권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으로 인한 산업재산권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한류 이미지·브랜드를 내세우며 우리 기업 제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한류패션기업이 중국 이외에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중동 등으로 늘어나며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

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등과 함께 해외 대응 기관 간의 연계망을 강화했다.

지재권 담당 침해대응 지침서(매뉴얼) 발간·배포(6월), 진출기업 대상 지재권 세미나 개최(9월)는 물론 각 기관 간 지식재산권 문의나 발간자료 등을 공유하며 협력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적 유통플랫폼의 콘텐츠 침해 보호 방안 ▲지식재산 합법 이용을 위한 유통문화 조성 방안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참석자들은 해외 불법유통 모니터링, 현지 법무 비용 지원 필요성과 함께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지식재산 보호 인식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6월 회의 이후 해외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도 공유했다. 전 세계 70개국에 배급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데드슈즈'의 경우, 2019년 국내 개봉 이후 해외 누리집(웹사이트)에 불법 파일이 올라와 정상적으로 해외 유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는 협의체 회의에서 소개받은 저작권해외진흥협회를 통해 8월부터 10월까지 적발된 불법 파일을 신고, 약 3600건을 삭제해 대처하는 등 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또한 지난 10월 중국 빌리빌리(Bilibili) 사이트

에서 방탄소년단 온라인 콘서트 '비티에스 맵 오브 더 소울 원(BTS MAP OF THE SOUL ON:E)' 영상이 불법 유통되기도 했는데, 한국 저작권보호원은 권리사의 빠른 협조를 통해 신속히 대응해 불법 인터넷 주소(URL) 171개를 삭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해외를 거점으로 한 한류 콘텐츠 불법복제물 유통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협업 사업(2021년, 7억 원)'과 해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현지 소송 등 분쟁 지원을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2021년, 18억 원)을 내년 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관련 국제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중재·조정 등 대체적 방안을 통해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은 "문화콘텐츠 산업은 직접 매출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부문 수출에도 영향력이 큰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유관 공공기관, 민간 협회·단체와 함께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이 전 세계에 활발히 진출하고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정음시예술회관에서 열린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동영상 캡처.

(사진=정음시청 제공)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전파 탄다

정음서 개최 클래식·뮤지컬 콜라보

오늘·20일 LG 헬로비전에서 방영

정음시가 지난달 17일 정음시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마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공연이 방송을 통해 전파를 탄다.

시는 클래식과 뮤지컬이 함께 한 환상적인 공연이 18일 밤 10시 5분과 20일 저녁 6시 55분 LG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방영된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은 대면 관람이나 유튜브를 통한 본 방송을 놓친 시민들에게도 최고의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 추진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공연 관람층 확대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1부는 지휘자 백운학이 이끄는 클라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젊은 감성 클래식 연주자들의 협연으로 이뤄져 관객들에게 강렬한 에너지를 선사한다.

'정명훈과 7인의 음악인' 일원으로 활약한 더블베이스리스트 성민제가 클래식계의 핫이슈로 성장해 이번 무대에 음악감독과 베이시스트로 활약한다.

또, 맑고 청아한 음색으로 폭넓은 레퍼토리를 소화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이 협연자로 등장한다.

뮤지컬 갈라 콘서트로 꾸며지는 2부에서는 화려한 수식어가 필요 없는 최고의 무대로 꾸며진다. 뮤지컬 '위키드'와 '아이다', '시카고' 등 대

작들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뮤지컬 디바로 성공적으로 전향한 아이비가 자신의 넘치는 에너지를 마음껏 발휘하는 무대를 보여준다.

또한, TV 예능 팬텀싱어의 프로듀서를 맡으며 관객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킨 뮤지컬계의 황태자 마이클 리가 함께해 최정상급 뮤지컬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두 배우 모두 각각 출연했던 뮤지컬의 멤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춘 듀엣곡도 선보인다. /정음=김태환 기자

도내 문화예술발전에 헌신한 예술인들에게 '큰 상'을

하림, 전북예총예술상 시상식

본상 수상자에 김남중 등 9명

하림(대표이사 박길연)이 전북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예술상 시상식을 가졌다.

지난 16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하림은 (사)한국예총전북연합회와 함께 공동으로 '제24회 전북예총하림예술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학, 국악, 음악, 건축, 사진 등 대중예술 각 분야에서 예술발전에 기여한 예술인을 발굴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특히 하림은 전북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예술상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예총하림예술상은 매년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예술인에게 주는 상으로 10개 협회와 11개 시군예총으로부터 추



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다.

올해 본상 수상자로는 김남중(설계, 58), 임귀성(한국무용, 56), 염광옥(발레, 54), 김요시담(종합문예), 이창규(서양화, 77), 이준

나됐다"고 밝혔다.

한편 본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200만원, 공로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제4회 전라북도 아리움 어버이 합창 경연대회

아름다운 아리아의 선율

첫음밤에 펼쳐지는

일시: 12월 26일 저녁 7시부터

장소: 서도프라자 10층 '이룸' 공연장

주최: 전주매일신문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